

複合建物 6.

〈S「빌딩」火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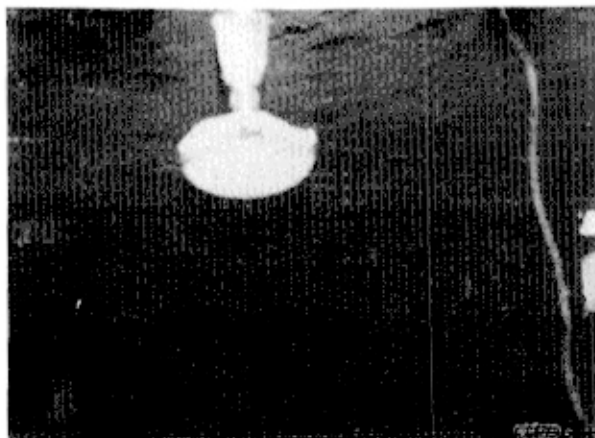
석유난로 顛倒에 의한
「빌딩」火災

1980. 2. 13

—延燒防止措置 不良으로 建物 開口部를 通해 隣接建物로 延燒—
死亡 1名, 負傷 2名, 財産被害 1千7百餘萬원(動産 不包含)



◀火災後의 建物全景



▲室內의 罹災 모습

●一般事項

建物用途: 複合用途

所在地: 서울特別市 中區

火災日時: 1980. 2. 13. 12:40~14:30

發火位置: 2層 雜貨점

火災原因: 석유난로 顛倒

●建物概要

市内 中心街에 위치, 1966年 新築, 철근「콘크리트」造, 地下 1層, 地上 10層, 延面積 532.36m², 벽 및 天井의 일부가 合板 및 「폴크」Tex로 되어있었고, 7개층은 雜貨점의 賣場 및 관계 用途, 4개층은 사진관, 의원, 의상실로 사용하고 있었음.

●火災狀況

2층 제과점 賣場에서 5세 정도의 어린이가 넘어져 同行한 보호자(30세정도, 女)가 황급히 일으키다가 옆에 있던 석유난로를 넘어뜨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서에 전화 신고를 하는 한편 종업원들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길은 벽면을 타고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자체진화가 곤란했으며 화재발생 약 10분후 소방대가 출동하였을 때는 이미 계단실과 벽체를 통해 上層으로, 開口部를 통해 옆 木造 2층건물로 확산되고 있었다. 피난계단 미설치로 층별구획이 되지 않아 上層部로 火災가 확대되었으며 창문을 통하여 2개의 인접건물이 延燒되었다. 또한 합판, 「폴크 텍스」 등의 가연성 내장재 때문에 화재의 확산속도가 빨랐고 火勢도 강한 편이었다.

●消火 및 避難活動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내에 있던 제과점 종업원 및 기타 근무자 등 20~30여명과 多數의 손님들은 건물 上層部로, 또는 4층 및 9층의 창문을 통하여 인접 10층건물로 待避하였으며 自体鎮火는 완전히 실패하였다. 소방대(소방차 20대)는 인접 건물로의 延燒防止와 上層으로의 확대를 방지하며 진화작업을 했으며 한편 高架사다리차를 이용 인명구조작업을 벌였다. 화재발생 약 2시간후 진화되었다.

●被害狀況

人命被害：死亡 1名, 負傷 2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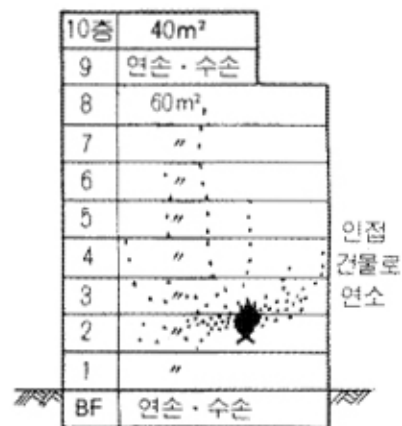
4층에서 작업중이던 도배공(46세, 男)은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해 현장에서 사망하고 건물주인(35세, 男)과 지하층 사진관주인(53세, 男)은 긴급대피중 각각 3주 및 6주의 負傷을 입었다.

財産被害：건물 1천7백여만원, 동산은 미상

2층~8층(322m²) 燒失 및 기타부분(210m²) 煙損 및 水損

●問題點

1. 석유난로 설치상태 不安定
 - 석유난로와 같은 화기사용시설은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한 위치와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함.
2. 피난계단의 미설치 및 층별 방화구획의 미비
 -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구조로 함으로써 계단실을 통한 층간 延燒를 방지할 수 있고 인명피난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며 「파이프·샤프트」 등 수직개구부를 불연재로 밀폐시킴으로써 층별 방화구획을 완전하게 하여야 함.
3. 延燒防止措置 不良으로 建物 開口部를 통한 인접건물로의 延燒.
4. 多量의 可燃性 内粧材 사용으로 화재확대가 容易.



건물 단면도